

사회

음주운전 첫 강등·성매수 정직 3개월 중징계

“먹칠 경찰 더 이상 안 봐준다”

광주경찰, '경찰의 날' 맞아 초강경 조치

경찰의 날(21일)을 앞두고 음주 교통사고와 성매수, 경찰서내 술판과 향음 등 최근 잇따른 물의로 지적받은 광주경찰이 해당 경찰관들을 중징계하며 초강경 자정 의지를 다졌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택시를 추돌한 동부경찰 소속 A경사에 대해 경장으로 1계급 강등되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다른 지방

청으로 전보 조치 의뢰했다. 지난 3월 광산경찰 소속 B경사가 도박 혐의로 1계급 강등된 적은 있지만, 음주운전은 광주경찰이 해당 경찰관들을 중징계하며 초강경 자정 이후 처음이다.

또 지난 10일 밤 11시께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인근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수를 하다 동부경찰에 단속된 동부경찰 C경사에 대해서는 정직 3월 처분을 내리고 타 지방청 전보 조치를 의뢰했다.

A경사와 C경사가 소속된 동부경찰

서장과 북부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말 사기 사건 피의자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로부터 향음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충남 서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동일한 비위 건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조치가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 본

분과 조직의 명예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을 포함한 각 경찰서는 경찰관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그룹 멘토-멘티제·집계 사례 동영상 교육·건강강제 운동·현장순회 교육 및 간담회·취약분야 테마점검 실시 등의 자정 노력을 펼쳐온 광주경찰청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충형기자 golee@

조선대 교수 해킹 사건 지시 혐의

광주·전남 기무사 원사 추가 구속

조선대 교수에 대한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군 수사당국이 광주·전남 기무부대 소속 한 모(47) 원사를 지난 18일 해킹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또 통신·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소속 한 모(35) 군무원이 해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한 군무원이 지난 18일 해킹 지원 사실을 자수했다”면서 “지난 14일 해킹 혐의로 구속된 광주·전남 기무부대 소속 군무원 김모(35) 씨와 종사 장모(35) 씨까지 합하면 현재 기무부대 요원 3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뿐 아니라 서울 송파지역의 기무부대 사이버 전문 요원까지 개입, 조직적으로 해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모 교수는 지난달 초 “누군가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훔쳐봤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김 군무원과 장 종사의 상사인 한 원사(계장급)의 지시로 해킹이 이뤄졌고, 김 군무원은 동기인 한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니원침 (8421) 김동주



육군 이병 외박 중 자살 인권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31사단 소속 김모(20) 이병이 지난 16일 외박 중 광주에서 자살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들은 김 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족 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꾸리' 운동중 타인에 부상 책임없다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20일 헬스클럽에서 일명 '거꾸리'를 사용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된 A(여·40)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 결정. ○A씨는 지난 6월 광주모 헬스클럽에서 발목을 걸고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운동기구를 거꾸리 이용해 세우다 때마침 뒷쪽이 있던 B(41)씨의 머리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 거꾸리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고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지 않아 형법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20일 우석법인 산하 복지시설 인화원 시설폐쇄를 위한 청문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시설폐쇄 대상인 인화원측은 이날 청문에 불참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딸 친구에 '몹쓸 짓' 검, 5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20일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낮 12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이자 광주 모 보육원 원생인 여중생 B(14)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육원 직원 남편인 A씨는 B양을 집으로 데려와 식사를 한 뒤 딸이 외출한 틈을 타 강제추행 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충형기자 golee@

“청문 불참 인화원 31일 폐쇄 통보”

광산구 밝혀 광주시 광산구는 20일 “우석법인 산하 인화원에 오는 31일께 시설폐쇄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인화원 측이 이날 시설폐쇄 통보에 대한 구청의 청문에 불참하자 이날 인화원에서 생활중인 원생들이 구청에서 생활중인 원생들과 함께 구청에 피폭으로 공문을 보내 청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화원측이 사실상 시설 폐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구청의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산구는 인화원 시설폐쇄를 단행한 뒤 인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의 한계 내에서 인화원에서 생활중인 원생들의 전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보험금이 뭐길래

친동생과 짜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의 손가락을 고의로 자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전직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모(41)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8시30분께 순천시 석현동 A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동생(38)과 함께 리모델링 작업 중 목재절단기에 왼쪽 손가락이 잘렸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정씨는 지난해 9월 초 자신의 명의로 6개 상해보험

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신의 새끼 손가락이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정씨는 우선 상해보험 수령액 2억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청구해 받은 뒤 이를 동생에게 건넸다. 단기간에 6개의 보험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을 이상히 여긴 각 보험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절단기 작업 중에 왼쪽 새끼손가락만 다친 점과 절

집 경매에 동생과 사기 공모

단기에 혈흔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 형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모(41)씨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청소년 유해 앱 유포업자 무더기 검거

정보 등이 담겨있지만 유해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성인 전자 업체와 수익금의 30~35%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앱을 직접 개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앱은 성인인증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무료로 선정적인 여성 화상을 제공, 내러블기 킷수 등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광고 효과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편한 교제를 제공·매개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화서비스와 전화번호 광고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집 경매에 동생과 사기 공모

단기에 혈흔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 형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모(41)씨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민노당 가입·성추행 검사 법무부, 면직 처분

민노당당장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 당원 신분으로 밝혀진 윤모(33)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함께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을 맞춘 구모 검사도 면직됐으며, 실무 수습생에게 함께 춤을 추자며 손을 잡아 끄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한 박모 검사는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이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apartments and land.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and and buildings.